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김수진* · 박정임* · 심우경**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계획 및 조경학 전공 · **고려대학교 조경학연구실

Interpretation of Cultural Landscape based on Community Spaces of Korean Traditional Villages

Kim, Soo-Jin* · Park, Jung-Lim* · Sim, Woo-Kyung**

*Major in Environmental Planning &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Landscape Architecture Program, Kore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understanding the wisdom of our ancestors in Korean traditional villages and finding out cues to designate and utilize community space in planning residential area in villages by examining community space in Korean traditional villages from cultural landscape point of view.

This study designated 18 Korean traditional villages which have been preserv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up to now, so deserve conservation from historical, cultural and artistic viewpoint. This study divided community spaces in each village into social area and ritual area depending on their uses and func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pilot study and main study. In addition, ritual areas were also divided into Confucian ritual area and ethnic ritual are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characteristics of space location and users by understanding the location of community space factors in the 18 villages. As for the factor analysis of community spaces, community factors established after the modern age were examined from modern viewpoint, and factors which had been destroyed or lost their original functions were examined from retrospective viewpoint.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out that cultural landscape in Korean traditional villages were affected by social relationship among villagers. The community spaces of villagers were multiple-function space rather than a space which was exclusively used by a specific class. Though the occupation of these spaces was separated and differentiated depending on sexes and ages, villagers tried to understand and respect each other through tacit communication.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Villages, Cultural Landscape, Community Spirit, Community Space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마을에서 공동체적 문화가 행해지던 공간의 문화경관적 해석을 통하여 전통마을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마을단위의 주거단지 계획 시 공동체적 공간을 설정, 활용하는 간접적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사례연구지는 역사, 문화, 예술적으로 전승가치가 있으며, 전통문화를 잘 보존, 전승하고 있는 18개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의 방법으로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각 마을별 공동체 공간을 장소의 활용과 기능에 따라서 사회적 영역과 의식적 영역으로 분리하여 고찰하였다.

또 의식적 영역을 유교적 의례공간과 민속적 의례공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Corresponding Author : Kim, Soo-Jin, Major in Environmental Planning &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Seoul 136-713, Korea. Phone : +82-2-3290-3630, E-mail : landscape@korea.ac.kr

세부적으로는 각 조사대상지의 공동체 공간요소의 위치를 파악하여 공간의 이용주체와 공간의 장소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공동체 공간의 요소별 분석으로 근대 이후 건립된 공동체 요소는 현재적 기점에서, 그리고 과거 조성되어 소실 등의 이유로 장소성이 상실되거나, 기능이 상실된 공동체 공간의 경우는 회고적 기점에서 고찰하였다.

연구의 결과 전통마을의 공동체 공간에 내재된 문화경관은 마을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의 영향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이 단지 개별적인 독립된 계층에 의해 점유된 공간이라기보다는 공간의 사용유무에 따라 다의적인 장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였다. 또한 남녀노소의 사용계층에 따라서 공간의 점유가 분리되고 차별화되어 있지만 서로 간의 암묵적인 소통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전통마을, 문화경관, 공동체 의식, 공동체 공간

I. 서론

과거 일제 침탈에 의한 세습풍습의 금지와 미신타파, 계몽주의 등은 우리 주거문화 발달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분단 이후 지식인들의 친미, 친서방의 사회적 분위기, 근대화의 기치 아래 행해진 새마을 운동 사업은 기초적인 생활여건 향상 등 양적수요에 대응하는 도시를 만들어온 반면,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김미성, 2008). 그로 인한 농촌 인구의 감소, 고령화, 생업의 다변화 그리고 전통적 생활양식의 파괴는 마을공간의 해체와 파편화를 초래하였는데, 이는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한국사회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최협, 1998).

한편, 삶의 질에 관한 욕구가 분출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도시주민들이 행복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이웃과의 공통적인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정체성과 공동체를 재형성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고, 정부기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농촌진흥청, 2005; 행정자치부, 2007).

21세기로 접어드는 현재의 시점에서 공동체 문화를 주목하는 것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주도해 온 근대성에 대한 폭넓은 성찰과 반성, 세계화에 대응한 지역사회의 중요성 부각 등에서 연유한 바가 크며(홍성구, 2009), 더욱이 우리의 주거문화는 총체적인 개혁과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어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 같은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시적으로 언제나 누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극복하고 전체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해서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김세철, 2005).

그 대안으로 전통마을의 사회적 건전성과 문화적 지속성, 그리고 삶터로서의 교훈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데(신상섭, 2000), 마을이 가장 작은 단위의 모습살이로서 공동체문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자급적, 정치적으로 그리고, 자치적, 문화적, 자족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자립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임재해, 2001). 또,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인자 중에서 가장 밀접해 있는 영역이므로 그 중요도가 더욱 크며, 물리적, 인공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성적 영역까지 충족시켜주는 보금자리이다(김경환, 2006).

특히, 전통마을의 주거는 자연환경, 종교, 국민성, 그리고 시대상황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독특하고 개성 있는 다양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데(심우경, 1987),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혹은 어느 하나의 우연한 요소의 결과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본 포괄적인 범위의 사회문화 요소의 산물로서, 개인적인 욕구의 결과라기보다 집단 전체의 목표와 욕구의 결과라 할 수 있다(Rapport, 1985: 73-74).

전통마을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연구는 민속학을 비롯한, 지리학, 인류학 등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건축이나 조경분야에서도 전통마을의 입지와 배치특성 등의 기본적인 양적연구에서, 생태, 문화, 공간통사 등의 복합적 연구와 같은 질적연구를 통한 연구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전통공간의 공동체 요소라 할 수 있는 민속적 장치에 대한 미학적, 또는 경관적인 접근(김한배, 1981; 이재근, 1981; 김동찬 외, 1999; 장동수, 2001; 김수진 외, 2007; 김수진, 2010)은 다소 소외되어 연구되어 왔다.

공동체라는 것은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것(Hillery, 1955: 118)으로, 개별적인 의식보다는 집단의식이 중요시되고, 개인의 가치보다는 집단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삶의 협력체라 할 수 있다. 특히, 마을의 공동체 문화는 오랜 동안의 경험과 현실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정착되었던 전통이었고, 검증된 지식과 정보의 총합,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된 만큼 실용성과 구체성을 생명으로 한다(이해준, 2005). 더욱이, 전통마을의 공동체는 서로간의 정보와 놀이, 노동력, 신앙, 각종 의례 등과 노래, 이야기, 춤 등 다양한 문예활동과 유래, 전설 등의 마을역사도 함께 공유하여, '우리'라는 유대감을 형성해 나간다.

공동체 신앙이 수행되고 있는 지역의 마을을 보면, 마을 사람들의 단결심은 물론 인간 삶의 질서가 잡혀 있음을 볼 수 있는데(표인주, 2002: 32), 이는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동질적이며 강한 집단적 연대감을 지니는 정합적 체계로서 전통문화를 관례처럼 따르며 자발적으로 생활하는 문화공동체(Redfield, 1947: 293)이

기 때문이며, 또 개인의 가치관과 도덕, 영성(靈性)에 대한 관념이나 세계관까지 공유하기 때문이다(임재해, 2007: 212-22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마을에서 공동체적 문화가 행해지던 공간의 문화경관적 해석을 통하여 전통마을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나아가 마을단위의 주거단지 계획 시 공동체적 공간을 설정, 활용하는 간접적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사례연구지의 선정기준으로는 역사, 문화, 예술적으로 전승가치가 있으며, 전통문화를 잘 보존, 전승하고 지역의 문화이미지를 잘 반영한 마을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등의 정부기관에서 선정한 마을인 중요민속자료, 사적, 역사문화마을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분포된 18개의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중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하회마을, 양동마을 그리고 외암마을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거나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인 마을이다. 지역적으로는 강원·충청지역의 2개 마을, 영남지역의 10개 마을, 호남지역의 5개 마을, 제주지역의 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지의 시간적 범위로는 현재를 중심으로 입향하여 마을이 전승되어져 온 회고적 접근법을 통해 고찰하였고, 현재 소실되었지만 과거 우세했던 장소적 특성을 지닌 경관 대상들은 문헌 및 인터뷰의 해석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지

| 번호 | 지역 | 대상 마을 | 소재지 | 기타 |
|----|----|-------|--------------------|--------------------------|
| 1 | 강원 | 왕곡마을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 중요민속자료 제235호 |
| 2 | 충청 | 외암마을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중요민속자료 제236호/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
| 3 | 영남 | 괴시마을 |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리 | 전통문화마을 |
| 4 | 영남 | 닭실마을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 녹색농촌체험마을 |
| 5 | 영남 | 해저마을 |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 전통문화마을 |
| 6 | 영남 | 황전마을 |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 명승지정예고 |
| 7 | 영남 | 양동마을 |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 중요민속자료 제189호/세계문화유산 |
| 8 | 영남 | 웃골마을 | 대구시 동구 둔산동 | 전통문화마을 |
| 9 | 영남 | 남사마을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 농촌전통테마마을 |
| 10 | 영남 | 한개마을 |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 중요민속자료 제255호 |
| 11 | 영남 | 한밤마을 |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울리 | 전통문화마을 |
| 12 | 영남 | 하회마을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 중요민속자료 제122호/세계문화유산 |
| 13 | 호남 | 강골마을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 득량정보화마을 |
| 14 | 호남 | 낙안읍성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 사적 302호 |
| 15 | 호남 | 도래마을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 전통문화마을 |
| 16 | 호남 | 방촌마을 |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 전통문화마을 |
| 17 | 호남 | 효동마을 | 전남 영광군 모량면 삼효리 | 문화역사마을 |
| 18 | 제주 | 성읍마을 |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 중요민속자료 제188호 |

연구의 방법으로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과를 해석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각 마을별 조사된 공동체 공간을 장소의 활용과 기능에 따라서 사회적 영역과 의식적 영역으로 분리하였고, 또 의식적 영역을 유교적 의례공간과 민속적 의례공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조사인 현지답사는 현장조사와 인터뷰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답사의 기간은 2006년 5월부터 2010년 4월에 이르기까지 반복 진행하였다. 현장조사에는 각 대상 마을에 현존하는 공동체 공간의 물리적 혼적관찰과 마을의 의례행위에 대한 행위관찰을 통해 공동체 공간의 장소성을 고찰하였고, 개략적인 인터뷰 조사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실된 공동체 공간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을주민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의식에 대한 세밀한 인터뷰 조사를 위해 각 마을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각 마을의 이장, 부녀회 그리고 노인회 등의 촌로를 방문하여 공동체 공간의 위치와 마을내력, 제의 상황, 의례행위 등을 확인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전통마을 입지의 문화경관

전통마을은 풍수적으로 배산임수와 장풍득수를 기본원칙으로 마을의 입지를 선정하였는데, 연구대상지인 18개의 마을은 모두 주산을 중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 속에 위치하며, 주산을 배산으로 하여 안산 또는 열린 들판을 향해 마을의 주향

을 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통마을이 선호하는 입지는 주산의 방향이 북쪽에 위치하여 마을의 주축을 북→남이나 북동→남서, 북서→남동을 가지는 형태로 주축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산을 배산으로 북남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더라도 풍수상의 사신사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을숲과 비보물과 같은 요소로 지형상의 불리함을 대신하고 있는데, 외암마을의 경우 백호의 기능이 약하여 터를 높여 마을숲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옷골마을은 안산의 기능이 약하여 지당을 과고 비보숲을 조성하였다. 또 낙안읍성과 방촌마을 등의 경우에도 안산의 기능이 약하여 비보숲과 수구막이 숲을 조성한 기록이 있는 등 지세를 보호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하여 비보를 하여 지세를 보완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괴시마을이나 도래마을의 경우는 마을 앞으로 문전옥답이 펼쳐져 있고, 마을의 좌정룡을 비롯한 우백호가 주거지만을 둘러싸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작지로의 지형이 열려있어 농작물의 일조에 대한 특별한 지형적 불리함은 없었으나 마을의 주향이 서향으로 인해 일조시간이 짧고, 긴 해로 인해 주민들의 심리적인 피해는 있는 것으로 보였다.

도래마을과 효동마을은 마을 동구의 북서쪽에 마을숲을 조성하여 1차적으로는 북서풍을 막고 또 지형을 보완하려고 한 반면, 괴시마을은 마을의 남서쪽 방향으로 마을숲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위치적으로 마을의 입지가 북서풍의 영향보다는 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해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마을에

서 흘러간 물이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남사마을이나 하회마을의 경우는 마을이 감입곡류의 평야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두 마을 모두 주거지가 형성된 마을 옆으로 일정한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다. 감입곡류지에 조성된 마을의 경우에는 지형지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각 주산을 배산으로 하여 주변의 지형으로 둘러싸여 각각의 향을 취하고 있었는데, 역시 각 개별의 향이 가지는 형국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을숲을 조성하여 비보하고 있었다.

하회마을은 마을의 서쪽의 전면을 만송정이라는 소나무 숲을 조성하여 부족한 안산의 기능과 서향이 가지는 심리적인 불안요인을 비보하고자 하였으며, 또 부용대의 깎아지른 듯 한 절벽으로부터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하여 마을숲을 조성하였다.

남사마을은 주산이 서쪽에 위치하여 서→동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마을이 주변지형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이 무엇보다도 튼실한 배산의 기능을 하고 있어 마을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남사마을은 비보숲을 조성하기보다는 감입곡류지의 여건상 하천이 크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동쪽 물이 돌아 나가는 곳에 수구막이 숲을 조성하였다.

한밤마을의 주산은 팔공산으로 옷골마을과 같은 주산을 배산으로 하고 있지만, 위치적으로는 옷골마을과 반대사면에 위

표 2. 전통마을의 입지

| 대상 | 사신사 | | | | 주산 | 주산으로부터의 주축 | 풍수형국 | 주거입지유형 |
|----|-----|----|----|----|----------|------------|-------|--------|
| | 주산 | 안산 | 청룡 | 백호 | | | | |
| 왕곡 | ● | ● | ● | ● | 오음산 | 북→남 | 행주형 | 능선형 |
| 외암 | ● | ● | ● | ○ | 설화산 | 북→남 | 회룡고조형 | 평지형 |
| 괴시 | ● | ○ | ● | ○ | 봉화산 | 동남→서북 | 八字형 | 계곡형 |
| 답실 | ● | ● | ● | ● | 백설령 | 북동→남서 | 금계포란형 | 능선형 |
| 해저 | ● | ○ | ● | ● | 응방산 | 북서→남동 | 금자형 | 계곡형 |
| 황전 | ● | ● | ● | ● | 달봉장 | 북동→남서 | 금계포란형 | 계곡형 |
| 양동 | ● | ● | ● | ● | 설창산 | 북→남 | 勿字形 | 능선형 |
| 옷골 | ● | ○ | ● | ● | 팔공산(대암) | 북→남 | 금구름수형 | 계곡형 |
| 남사 | ● | ● | ● | ● | 이구산 | 서→동 | 쌍룡고구형 | 감입곡류형 |
| 한개 | ● | ● | ● | ● | 영취산 | 북동→남서 | 옥녀산발형 | 능선형 |
| 한밤 | ● | ○ | ● | ● | 팔공산(오도봉) | 남→북 | 옥녀산발형 | 능선형 |
| 하회 | ● | ● | ● | ● | 화산 | 동→서 | 연하부수형 | 감입곡류형 |
| 강골 | ● | ● | ● | ● | 오봉산 | 북→남 | 卍字形 | 능선형 |
| 낙안 | ● | ○ | ● | ● | 금전산 | 북→남 | 행주형 | 읍성형 |
| 도래 | ● | ○ | ● | ● | 풍악산 | 동→서 | 분지형 | 능선형 |
| 방촌 | ● | ● | ● | ● | 천관산 | 북→남 | 행주형 | 평지형 |
| 효동 | ● | ○ | ○ | ○ | 장암산 | 동→서 | 八字형 | 능선형 |
| 성읍 | ● | ● | - | ● | 영주산 | 북→남 | 행주형 | 읍성형 |

범례: ● 강함, ○ 약함, - 없음

치하고 있어 마을이 북향을 하고 있다. 이 역시 지리적으로 북향을 하고 있어 비보적 의미의 숲인 성안숲과 오리모양의 솟대를 세우고 있었다.

한편, 18개의 연구대상지의 마을의 풍수형국은 18개 마을 중 가장 많은 형국을 나타내는 행주형이 4개 마을, 옥녀산발형이 2개, 연하부수형이 1개, 분지형이 1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八字형, 金자형, 勿자형, 也자형의 글자형을 띤 마을이 5개, 그리고 동물과 관련된 형국인 회룡고조형, 쌍룡교구형, 금구음수형, 금계포란형 등의 형국이 5개 마을이었다.

옥녀산발형이나 연하부수형 등의 형국을 가진 한밤마을과 하회마을은 행주형의 풍수형국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의 형국이며, 금계포란형이나 쌍룡교구형의 형국 역시 지형이 풍수형국상 사신사로 둘러싸인 형국이었다.

따라서 연구사례지인 18개의 전통마을을 볼 때 전통마을의 입향 시 가장 선호하는 지형의 풍수형국은 행주형이나 금계포란형 등의 사신사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형의 입지를 선호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전통마을 공간구성의 문화경관

연구대상지인 18개의 마을의 공간분할 요소를 하천, 도로, 지형, 지물의 4가지 요소별로 세분하여 각 마을에 해당 요소를 선별하면, 양성마을인 왕곡마을과 양동마을 그리고 도래마을은

비교적 많은 3요소 이상으로 마을의 공간을 분할하고 있었다.

왕곡마을은 하천과 도로, 그리고 지물의 요소로 마을의 공간을 분할하고 있었는데,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와 하천이 있는 만큼 마을의 분할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물의 요소인 함씨종가나 효자비 등은 강릉 최씨와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였다.

비교적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양동마을은 많은 요소가 마을 내부의 공간을 분할하고 있는데, 역시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하천이 있고, 또 마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라서 다양한 측면의 지형과 지물로서 마을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여강이씨는 마을 내부에서 파손들의 분과가 활발하게 일어난 만큼, 월성손씨와의 경계 못지않게 동성의 파손들 간의 마을 내 공간분할 역시 세부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래마을은 '川'자형의 지형과 그에 따른 하천으로 인해 마을의 공간이 분할되어 있었는데, 각 분할된 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의 성씨별, 그리고 파손별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마을의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마을 내부의 도로는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성씨와 소작들, 하인들의 거주지와 공간을 분할하고 있었다. 더욱이 각 부락의 입구에는 마을의 공간을 분할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각 부락 입구를 상징하는 지물인 동각과 같은 정자를 건립하여 마을의 입구가 가지는 랜드마크적 의미를 하고 있었다.

동쪽으로 구성된 마을인 괴시마을, 답실마을, 해저마을, 황전마을, 옷골마을, 한개마을, 하회마을, 강골마을, 방촌마을 등의

표 3. 전통마을의 공간특성

| 대상 | 마을 내부 공간분할 요소 | | | | 마을 입구의 상징적 요소 | | 마을구성 주요성씨 | 마을구성 형태 |
|----|---------------|----|----|----|---------------|--------|------------------------------------|---------|
| | 하천 | 도로 | 지형 | 지물 | 유교적 요소 | 민속적 요소 | | |
| 왕곡 | ● | ● | - | ● | ● | ● | 강홍함씨, 강릉최씨 | 양성마을 |
| 외암 | ● | ● | - | - | ● | ● | 예안이씨 | 동성마을 |
| 괴시 | - | ● | - | ● | ● | ● | 영양남씨 | 동성마을 |
| 답실 | - | - | ● | - | ● | ● | 안동권씨 | 동성마을 |
| 해저 | - | ● | - | - | ● | ● | 의성김씨 | 동성마을 |
| 황전 | - | - | ● | ● | - | ● | 의성김씨 | 동성마을 |
| 양동 | ● | ● | ● | ● | ● | - | 월성손씨, 여강이씨 | 양성마을 |
| 옷골 | - | ● | - | ● | - | ● | 경주최씨 | 동성마을 |
| 남사 | ● | ● | ● | - | ● | ● | 진양하씨, 성주이씨, 밀양박씨, 전주최씨, 연일정씨, 재령이씨 | 각성마을 |
| 한개 | - | ● | - | - | ● | - | 성산이씨 | 동성마을 |
| 한밤 | - | ● | - | - | ● | ● | 부림홍씨, 영천최씨, 전주이씨 | 각성마을 |
| 하회 | - | ● | - | - | - | ● | 풍산류씨 | 동성마을 |
| 강골 | - | ● | ● | - | - | - | 광주이씨 | 동성마을 |
| 낙안 | - | ● | - | - | - | ● | - | 각성마을 |
| 도래 | ● | ● | ● | - | ● | ● | 풍산홍씨, 강화최씨 | 양성마을 |
| 방촌 | - | - | ● | - | ● | ● | 강홍위씨 | 동성마을 |
| 효동 | - | - | - | ● | ● | - | 전주이씨, 안동장씨, 평택임씨, 광산김씨, 영광정씨, 수원백씨 | 각성마을 |
| 성읍 | - | ● | - | - | - | ● | - | 각성마을 |

마을들은 동성마을로써 특별히 마을의 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의식적으로만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마을의 파손별 공간분할과 소작들이나 하인들의 주거지와와 공간을 분할하고 있었다.

괴시마을은 마을을 관통하는 중심 도로를 통해 마을의 종손과 파손의 공간을 분할하고 있었고, 또 그 마을의 기준으로 각 세부적인 민속적요소인 계당을 설치하여 마을의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주민들 간의 특별한 경계의 의미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답살마을과 해저마을, 황전마을 역시 특별히 마을 내부의 주거공간을 분할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마을의 규모가 작고, 또 파손들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였다. 답살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이 몇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으로 인해 주거공간 내부는 특별한 공간이 분할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거지 이외의 마을 단위의 범위로 확대해 보면, 과거 마을 동구인 삼계서원 일대와 석전청사가 위치한 석천계곡, 그리고 종택이 위치한 주거공간, 그리고 추원재 등이 있는 제의공간 등의 개별공간이 지형에 의해 분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웃골마을이나, 한개마을, 하회마을, 강골마을, 방촌마을 역시 동족마을로써 복잡한 공간분할 없이 단순히 1, 2개의 요소인 도로나 기타 지물로서만 마을의 공간구획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는 동족마을 특성상 특별한 경계적 요소가 없더라도 마을주민들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공간이 분할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였다. 또 파손들 간에 특별히 경계를 이루고 있을 만큼의 마을의 공간적 범위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족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씨인 지주층과 소작들이나 하인들 간의 심리적인 위축과 위계로 인하여 이 두 집단 간에는 특별한 경계의 요소가 없더라도 일정의 공간적 위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동성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의 입구나 경계에 유교적 의례의 공간요소인 효자비나 효자각 등의 정려를 건립하여 마을에서 세거하는 주 성씨의 위계와 세도를 외부에 드러내거나 또 자랑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특별한 성씨별 소속감이 없는 소작이나 하인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상당한 암묵적인 경계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암마을은 마을을 관통하는 안길로 크게는 마을 지주들의 공간과 소작 및 하인들의 공간으로 분할하였고 또, 마을의 지주들이 사는 마을의 내부를 관통하는 인공수로를 통해 종손과 파손들 간의 공간을 분할하고 있었는데, 이는 원래 마을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종가가 마을의 중심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였지만 일정기간 소실되어 있는 동안, 인공수로를 쓰고 있는 일부 지주층의 주거들이 특정의 위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근대이후에 종가와 사당이 다시 현재의 자리로 이전해 옴에 따라 마을의 공간적 위계와 공간구획이 새롭게 재적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복잡한 성씨를 형성하고 있는 각성마을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간구획의 요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동족마을의 연장선상과 분화과정, 그리고 근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성씨가 유입되어 현재의 각성마을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이다. 남사마을을 비롯한 한밤마을 등의 마을은 비교적 근대 이후에 새로운 성씨가 유입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낙안읍성이나 성읍마을의 경우 비교적 계획적으로 조성된 읍성마을이기 때문에 마을의 공간구획이 관청시설이나 객사를 중심으로 마을의 주도로와 각 세부적인 공간들이 구획되었는데, 특별히 각 읍성에서 이루고 있는 작은 부락의 마을들은 특별한 경계적 요소 없이 마을의 안길이나 셋길을 통해 세부적인 공간을 구획하고 있었다.

3.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 요소의 문화경관

연구대상지인 18개 마을 대부분의 사회적 영역은 주로 집회, 휴식의 기능 그리고 공동생활 중심의 장소의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공간의 이용은 주로 마을의 구성하는 전체주민을 주 대상으로 이용하지만 대부분 마을의 소작들이나 여성들이 이용하였다. 특히 우물과 샘터 등의 공간은 여성의 대표적인 작업공간이면서 휴식공간의 역할을 하였다.

전통마을의 공간구성 요소 중 문화경관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로는 의례공간과 같은 의식적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식적 영역은 전통마을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의식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 사회적 영역의 문화경관 특성

(1) 집회, 휴식 중심으로서의 공동체 공간

비교적 근대 이후에 조성된 마을회관과 노인정, 경로당 등은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의식함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의 공공시설의 경우 마을 중심이나 마을 입구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연구사례지의 중 마을 중심에 집회, 휴식의 기능이 있는 마을은 왕곡마을, 외암마을, 해저마을, 남사마을, 강골마을, 방촌마을, 효동마을 등이고,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은 답살마을, 황전마을, 양동마을, 하회마을, 도래마을 등이 있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의 특징으로 양성마을인 왕곡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마을주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현재는 마을의 중심적인 역할과 함께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부락의 경계와 같은 역할도 함께 하고 있었다. 또 이 중심의 공간에서는 특정일에 마을 축제가 개최되는 공간으로 마을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놀거나 외부관광객이 마을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참여의 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었다.

각성마을인 남사마을과 효동마을 역시 마을 중심에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남사마을은 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마을 동계의 공동경작지였던 공간에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마을공동의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이 공동의 경작지의 공간은 과거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지방도로와 마을회관의 건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마을의 입구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효동마을은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위치하는 공간에 또 다른 공동체 공간인 마을의 시정[모정]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공간은 마을회관이 건립되기 전부터 마을 중심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장소로, 이 장소는 과거 마을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공간으로 마을의 성장과 외부성씨의 유입 등의 요소로 인해 마을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의 입구가 마을의 중심으로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을 건립하면서 가장 높은 사회적 중심 기능을 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동성마을인 해저마을, 강골마을, 방촌마을 등의 경우는 마을의 규모와 마을의 성장형태의 과정에서 가장 활발한 이용이 있었던 마을의 안길에 마을회관을 위치하여 마을주민들을 통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해저마을이나 강골마을, 방촌마을의 경우는 마을의 성장과 더불어 마을의 주 진입로의 위치가 변경되어 그 과정에서 마을의 중심지의 장소에 마을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마을 중심에 위치한 마을회관을 중심공간으로 마을이 형성된 것처럼 작은 부락들의 공간이 나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각 부락에서 마을 중심의 마을회관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을의 세부적인 동선들이 계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중심에 마을회관과 같은 집회, 휴식기능의 공동체 공간이 위치한 마을은 해저마을, 강골마을, 방촌마을, 효동마을 그리고 외암마을이 대표적인데, 그중 왕곡마을, 해저마을, 강골마을, 방촌마을, 효동마을 등은 마을로의 주 진입이 2개 이상의 안길로 진입하고 안길의 교차점에서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었다.

반면, 외암마을은 마을 어귀의 반석교를 통한 하나의 동선으로 마을 중심의 마을회관으로 다다를 수 있는데, 진입동선인 한 개인 것으로 볼 때 마을 입구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 중심에 회관이 건립된 것은, 마을 중심에 위치하여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편리성을 제공했다는 것보다는 과거 새마을운동시절 마을의 주도 관리계층인 마을 상부의 주민들이 아랫마을의 주민들을 쉽게 동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적지를 선정하였던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외암마을 역시 마을회관 건립 이전에 이용되었던 반석정이나 농막 등의 공동체 공간이 마을의 동구 및 입구에 위치하여 집회, 휴식의 기능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마을회관과 같은 집회, 휴식의 사회적 공간이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는 대부분 마을은 주로 동성마을로 마을의 형국이 일정

부분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 외부에서 마을안길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이 하나일 경우에 나타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마을이 닭실마을, 해저마을, 양동마을, 하회마을 등이 나타났다.

양성마을이지만 독립된 형태로 각 부락의 안길이 형성되어 있는 도래마을의 경우는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공간이 각각의 독립된 주산을 가지고 있었고, 독립된 마을의 입구와 기타 공동체 공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의 입구에 동각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도천정과 우산각 등의 동각이 위치하여 마을회관의 기능을 하였다.

이는 과거 마을 동구에 위치하고 있던 노거수나 모정이 마을 주민들의 휴식과 마을의 집회와 회의를 하던 것이 새마을사업이나 근대화 이후 마을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새롭게 그 기능들이 이입되어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진다.

현재의 연구대상지의 18개 마을에는 큰 노거수가 많이 있는 남아 있지 않지만, 대표적으로는 외암마을의 하천변에 있는 느티나무 정자목, 괴시마을의 왕버들 노거수, 남사마을의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팽나무 정자목, 한개마을 입구의 왕버들 노거수 그리고 마을 외곽의 중심에 있던 느티나무 정자목, 강골마을의 마을회관 앞의 은행나무와 팽나무 노거수, 낙안읍성의 팽나무, 귀룡나무, 느티나무 등의 노거수들, 방촌마을을 왕버들 노거수와 팽나무 노거수 그리고 삼괴정이라 불리는 회화나무 노거수 등은 마을의 회관이 들어서기 전, 마을 공동 또는 일정 집단의 사회적 영역을 구성하는 공동체 공간으로서 마을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집회, 회의, 또는 기다림의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였다.

(2) 공동생활 중심으로서의 공동체 공간

전통마을의 공동체 공간의 중심 생활시설로는 공동우물이나 공동샘, 빨래터 등의 취수관련 공간과 물레방아, 연자방아, 디딜방아 등의 농작물을 정제하는 장소, 그리고 마을마당과 같이 마을주민들이 농작물을 건조하는 공간 등의 생활공간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었다.

마을 내부에 공동우물이나 빨래터와 같은 공동생활의 공간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공동우물의 공간이 외부의 동선으로부터 일정 부분 분리가 되어 있거나 담장과 같은 지물로 일정부분 위요되어 있는데, 과거 남녀가 유별했던 만큼 주로 여성의 중심공간으로 활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용의 범위에 있어서도 마을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거 단위의 클러스터를 형성한 소공동체적인 범위에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소공동체의 범위는 서로간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공동체적인 의식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마을로는 도래마을이나 한밤마을 등이다.

또한 효동마을과 같이 마을의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공동우물을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마을의 분화와 팽창이 동심원 형태로 일어난 만큼, 더욱 강한 중심성과 영역성이 형성되었는

데, 특히 혈연을 중심으로 공간이 이용되고 우물을 사용한 만큼 더욱 강한 공동체의식을 형성한다. 그리고 황전마을과 같이 우물을 개소하여 소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데, 마을전체가 동족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후손이나 파손들에 의해 마을의 공간이 점유되어 있는 만큼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있겠다.

우물의 위치는 마을의 풍수형국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행주형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 비교적 마을 중심에 공동우물이 위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마을외곽에 공동의 우물을 파서 이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왕곡마을의 경우 공동우물은 마을의 상단 합씨일가의 거처에 한 개소가 있었다. 낙안읍성과 성읍마을의 경우에는 공동우물과 샘터가 마을내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비교적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을외곽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방촌마을의 경우도 각 개별 부락의 내부에 공동우물이 위치하고 있지만, 7개의 부락이 합쳐진 마을의 형국을 볼 때 마을외곽에 각 부락의 주거들이 위치하고 있어, 마을외곽에 공동의 우물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괴시마을, 황전마을, 한개마을 등의 마을도 마을의 외곽에 공동우물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들 마을의 공동우물은 마을의 외곽으로 흐르는 계곡의 물줄기 옆으로 공동의 우물이 조성되어 이용되었다. 주로 마을 외곽에 위치한 공동우물의 주변은 주로 마을의 소작이나 하인들이 거주하는 공간 옆으로 많이 위치하였는데, 과거 신분구조상 우물, 빨래터 등의 공간은 작업공간이었기 때문으로 보였다.

한편,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공동의 우물은 옷골마을과 해저마을의 두 마을에서 파악이 되었는데, 옷골마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우물의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물을 이용하는 주체가 마을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는 마을 입구의 장소는 여성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저마을의 공동우물인 바래미샘은 마을 입구에 위치하여 마을주민을 비롯한 외부에까지 영친수로 알려져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있어 왔는데, 과거에는 현재 바래미샘 앞의 마을 입구가 입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것이다.

마을 공동의 연자방아나 디딜방아, 물레방아 등의 작업공간들은 지주층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상층부나 중심적인 위치와는 거리가 좀 떨어진 마을 입구나 마을의 외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치적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실질적인 이용의 주체가 마을의 여성들이나 소작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남사마을처럼 물레방아 옆으로 마을의 노거수인 정자목이 위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물레방아의 이용주체와 함께 정자목 역시 마을 여성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이용이 되는 등 특정 계층의 공동체 공간이 그 주변의 환경까지도 이용주체의 범위가 확장되어 공간이 점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입구에 물레방아가 위치하고 있는 외암마을과 양동마

을 등의 마을은 마을주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한 주 이용계층인 소작들이나 하인들이 기거하는 공간 주위로 위치하고 있는 장소적 특징이 있다. 한편, 외암마을과 양동마을 모두 마을 입구 주변으로 개천이나 하천이 흐르고 있어 물레방아의 설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졌다. 이외에 답실마을이나 남사마을 그리고 낙안읍성 등의 물레방아 역시 수원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어 사용하는 만큼 수로 근처나 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동의 디딜방아나 연자방아 등의 이용에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마을의 이용주체인 소작들이나 하인들이 거처하는 주거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 한편, 주 이용계층에 따라서 지주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들의 경우에는 외암마을과 옷골마을의 연자방아의 경우처럼 지주층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가까운 곳에 별도의 작업공간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는 마을 공동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일부지주층을 위한 제약적인 공동의 시설이라 할 수 있겠다.

마을 공동의 연자방아와 디딜방아 등의 작업공간들의 조성에는 비교적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부여되었는데, 옷골마을, 남사마을, 성읍마을 등의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계(洞契)의 활동이 여타 마을보다 활발하게 운영되어 주민들의 공동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마당의 경우는 전통마을 대부분의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 마을 입구에 마을의 입구마당을 형성하고, 또 마을내부에서는 안길과 인접한 공간에 작업마당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마을회관이나 노거수, 그리고 동각이나 모정 등의 건립되어 있는 대부분의 공간에 마을마당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주층들의 솟을대문 앞에도 일종의 마당이 조성되는 등 평소 마을 주민들이 농작물을 건조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특정일에 마을주민들이 마을 공동의 놀이문화를 행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공동체적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의식적 영역의 문화경관

(1) 유교적 의례공간

① 종가의 문화경관적 특성

전통마을의 유교적 의례공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간으로는 마을의 종가와 종가에 부속되어 있는 사당을 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전통마을의 경우, 마을 내 종가를 비롯한 사당이 건립되어 있다. 그러나 그 건립 위치에서 있어서는 마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통마을의 종가가 마을 입구에서 바라볼 때 위엄과 위계를 표출하는 마을의 가장 내밀한 곳에 위치하거나 마을 중앙에 위치하였다.

외암, 괴시, 답실, 황전, 옷골, 한개, 도래, 강골마을 등의 마을은 마을 내부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 종가가 위치하여 마을의 가장 높은 위계를 상징하고 있고, 주산의 중심 혈자리에 위치

하여 상징적 가치가 크다. 이러한 형태의 마을은 주산에서부터 종가, 그리고 마을 안산으로 이르는 상징적 위계의 축을 형성하여, 마을 종가가 가지는 위계를 마을의 풍수적인 길지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겠다.

외암과 한개, 도래마을은 마을의 안길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간적으로 마을의 중심축을 형성하여 위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다. 괴시, 닭실과 강골마을 등의 종가는 공간적 위계를 형성하는 주산의 중심 혈자리에 위치하였는데, 그 종가를 주축으로 종형보다는 횡형의 형태로 파손들과 후손들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었다.

그 이외에 왕곡, 한밤마을 그리고 하회마을 등은 마을 중심에 종가가 위치하여 마을의 중심적인 영역을 상징하거나, 또 어떤 마을의 중심적인 상징물에 인접하여 마을 내에서의 특성의 위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왕곡마을은 마을의 중심에 함씨종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마을의 안길이 분화되어 다른 성씨와 경계를 이루는 공간으로 마을 내에서 보면 공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함씨의 파손들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 상부의 계곡이 더 위계를 형성해 보이지만, 마을 전체 형국의 측면에서 본다면 행주형 마을의 중심 돛대에 위치하고 있어 풍수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한밤마을의 경우도 마을의 중심지와 가까운 곳에 함씨종가인 경절당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대청이라는 누각이 행주형 마을의 중심에 위치하고, 마을 내에서 가장 높은 위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었다.

마을의 대청이 함씨 종가보다 높은 위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함씨들이 마을의 입향 이전부터 대청의 공간이 마을 중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종교의 상징적 공간으로 일정부분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하회마을은 입향조인 류종혜가 식수한 것으로 알려진 느티나무인 삼신당이 마을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삼신당 지역이 풍수형국상 연화부수형일 때는 화심부분에 해당되고, 행주형일 때는 돛대로 해석되는 상징적 특성이 있다. 그런 삼신당 주위로 마을의 지배층인 양진당과 충효당 등의 상류주거가 입지하여 마을의 가장 중심적인 위상과 위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을 입구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해저마을의 팔오현 종가는 마을 내에서의 공간적 위계보다는 경작지로부터 멀어지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불리함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작지가 가까운 마을 입구 근처에 종가의 터가 위치하였고, 팔오현 종가의 입향 이후 형성된 후손들의 주거는 종가 뒤로 차례로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후면으로 가면서, 혈연적인 위계가 낮아지는 역전된 공간위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남사마을과 방촌마을은 종가의 앞에 특성의 상징물을 배치하여 종가의 특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 남사마을의 분양고가 앞으로는 마을을 상징하는 회화나무 노거수 2주가 교

차하여 'X'자 모양으로 굽어 있고, 방촌마을의 위씨종가의 앞에는 큰 바위와 회화나무 노거수가 식재되어 있어 특성의 공간을 형성하여 종가가 가지는 경관적 특수성을 더욱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② 정려와 신도비의 문화경관적 특성

대부분의 전통마을의 입구에는 효자비, 효자각과 같은 정려와 각종 신도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유교적 의례공간은 개인의 자랑거리인 동시에 문중의 상징적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마을 입구에 건립하였다.

그러나 꼭 마을 입구에만 정려와 같은 신도비가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내부에서 비각을 세운 경우도 왕왕 나타나는데, 왕곡마을의 함씨종가 앞으로 건립되어 있는 효자각, 한개마을의 돈재 신도비, 옷골마을의 정려각 낙안읍성과 성읍마을의 서정비각은 마을 내부에 위치하여 각 개별적인 공간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왕곡마을의 효자비와 효자각은 각각의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데, 효자각은 마을 입구의 언덕에 위치하여 마을 어느 곳에서든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다. 또한, 마을의 중심에 있는 함씨종가 앞으로 위치하고 있는 효자비는 양성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 구조상 최씨일가와와 경쟁적인 관계에서 더 높은 위상을 점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립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왕곡마을의 정려들은 양성마을로서의 경쟁과 화합의 구도 속에서 표출된 의례시설로 볼 수 있겠다.

마을 내부의 깊숙한 곳에 건립되어 있는 한개마을의 돈재 신도비는 돈재의 충절과 절개를 기리는 비각으로 이 신도비를 통해 북비고택과 교류하는 지역유림과 후손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인지하도록 하고, 또 이러한 신도비를 문전에 건립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북비고택의 마을 내 위상을 더욱 높게 형성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옷골마을의 정려는 마을의 동구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마을 동구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와 실질적인 최씨일가가 거주하는 영역에 건립되어 있는데, 이는 최씨일가의 영역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여 마을 내의 소속감과 귀속의식을 더욱 강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마을 뒷산의 대암으로 부터 별묘, 보본당으로 이르는 축선의 연장선에 의도적으로 정려를 위치하여 '효의 축'을 형성한 것은 가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유교적 근간과 선친의 실천과제의 방향을 적당하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되어 졌다.

한편, 낙안읍성과 성읍마을의 비각들은 대부분 수령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때에 수령의 재임동안 치정의 고마움으로 백성들이 건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비각들은 수령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명예이자 읍성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는 자랑으로 여겨졌다.

성읍마을의 경우는 객사까지 이르는 거리에 비석을 열로 세워 놓았던 흔적이 있고, 또 낙안읍성은 낙안향교에 비각들을

건립하여 특정의 위계성을 부여하였다.

특히 임경업 장군 비각은 읍성 내부의 객사 앞에 건립하여 마을주민들이 제의를 지내는 제당의 역할로도 활용되었는데, 유교적 의례의 대표적인 공간이면서도 마을 신앙의 위상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장군의 치정의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불안했던 사회상이 새로운 유형의 제당으로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③ 교육공간의 문화경관적 특성

전통마을의 강학을 위한 서당, 서원, 정사 등은 특정의 혈족뿐만 아니라 지역 유림들의 모임이나 회동을 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많은 마을에서 조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교적 의례가 강한 반가와 경제력과 노동력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가문의 경우 더욱 많은 재실과 강학의 공간이 조성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교적 공간들은 조상을 봉헌하는 재사의 기능과 휴식, 강학을 위해 건립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의 영역과 위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로도 이해되어졌다.

연구사례지의 마을 중 괴시마을의 경우 마을의 정착과 성장 과정에서 선주민들과의 경쟁적인 구도가 형성되어 스킨골의 깊숙한 곳까지 정자를 건립함으로써 마을의 영역이 스킨골까지 영역이 미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답실마을도 마을의 좌우에 청암정과 송암정을 건립하여 마을 동-서의 축을 형성하고, 남-북의 축에 추원재와 석천정사, 그리고 삼계서원을 건립함으로써 마을의 종가를 중심으로 한 네 방위의 공간적 범위를 안동권씨의 세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정의 성씨가 주도하고 있는 각성마을의 경우 더욱 경쟁적으로 정자나 재실건축이 건립되어 지는데, 남사마을과 한밤마을이 그러한 경우이다.

남사마을의 경우에는 마을의 성씨 구성이 각성마을을 이루고 있지만 마을을 주도하고 있는 세 성씨에 의해 경쟁적으로 마을 주변의 공간에 재사와 강학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이는 마을 내에서 각 개별 문중이 서로간의 경쟁과 균형을 원리에서 혈연 공동체가 가지는 독특한 결속력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실공간이 가지는 상징성과 재실을 건립함으로써 형성되는 문중의 위세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보여졌다.

한밤마을에도 마을 내 많은 재실들이 건립되어 있는데, 마을의 가장 높은 위계를 형성하고 있는 마을 중심의 대청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이루면서 재실들이 조성되어 있다. 마을의 가장 중심권역으로는 흥씨일가의 종파를 중심으로 재실을 조성하였고, 그 뒤로 흥씨의 파손들 그리고 마을 외곽에는 비교적 늦게 입향한 성씨들의 재실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 재실들은 마을의 대표적인 남성 공간으로써 재사와 강학의 기능 외에 마을 노인들의 휴식을 공간으로 이용되어 현재에는 각 성씨별 노인

들의 노인정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하회마을의 강학과 수기의 공간으로 겸암이 건립한 겸암정사, 빈연정사와 서애가 건립한 원지정사, 옥연정사는 각 개별의 가옥에서 별서 정자라는 공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성리학자가 구비하고자 했던 세 가지 유형의 건축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조성되었으며, 또 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하나씩 실현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기의 공간은 유교적 의례의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유교적 수양에 기초를 충실히 하는 곳으로서 선비들의 제한적인 공동체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각성마을은 아니지만 비교적 많은 재실이 건립된 한개마을은 성주이씨의 동족부락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실과 서당이 갖춰져 있는데, 마을 내에서 유교적 덕목인 효와 제, 교육의 의미가 얼마나 강했음을 알 수 있겠고, 마을 밖의 수리에 있는 삼봉서당은 지역의 사람들이 건립한 서당으로 마을 내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가지는 마을의 위상과도 관계가 있다. 한편, 한개마을은 파손 간에 서로 다른 두 학과가 양존하여 학문을 탐구하였기 때문에 학과별 덕목이 다른 유형의 수학 공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적 많은 재실과 서당이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마을 재실에 서당의 기능이 복합된 것은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질서 부여라는 맥락에서 쉽게 이해되는데, 재실에서 교육함으로써 학동들에게 수시로 훌륭한 조상을 상기시키며 공부를 독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제와 문중의 회합 때에만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재실의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2) 민속적 의례공간

조사대상지인 18개 마을 중 17개 마을에서 마을의 제의를 지낸 흔적을 추적할 수 있었는데, 민속적 제의를 지내지 않았던 마을로는 한개마을이 유일하였다. 그리고 마을 공동제의가 행해지던 제당은 제의를 개최했던 17개 마을 중 16개 마을이 당목의 형태로 제당이 조성되었다. 당목은 느티나무가 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팽나무가 많았다.

당목과 함께 당집이나 돌탑, 장승이나 입석과 같은 기타상징물은 비교적 영남지역의 마을이 많았다. 당집의 형태로 구성된 제당은 4곳으로 답실마을, 해저마을, 하회마을, 성읍마을인데, 주로 영남지역 중 경상북도 지역인 안동, 봉화지역의 마을에서 주로 당집을 많이 세웠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마을의 공동제의를 지낸 17개 마을 중에서도 양동마을과 도래마을, 옷골마을 그리고 성읍마을의 당목은 실질적인 민속적 공동제의를 지냈다는 명확한 자료와 당상제를 지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당목이라 불리는 신체가 있었던 만큼 마을 공동의 제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것을 추정할 수 있겠다.

양동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위한 민속적인 제의공간은 없었지만 각 가문별 유교적 형식의 은행나무 고사를 정월보름에 지

표 4.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요소

| 대상 | 사회적 영역 | | 의식적 영역 | | 기타 |
|----|--|--|---|--|------------|
| | 정치/집회/휴식 | 생활 | 유교적 의례 | 민속적 의례 | |
| 왕곡 | 마을회관, 마을보존회 | 방앗간, 공동우물, 마을마당, 공동샘터, 빨래터, 지당 | 함씨종가, 효자각, 효자비 | 당산목, 마을숲, 기우제터, | 동학기념비 교회 |
| 외암 | 새마을회관, 마을보존관리사무소, 열승정, 반석정, 농막(모정), 정자나무 | 지당, 마을마당, 디딜방아, 연자방아, 물레방아, 빨래터 | 외암종가, 외암사당, 외암묘소, 진한평 묘소, 신도비, 경려각, 외암정사(관선재) | 장승, 솟대, 당산목, 산신당, 마을숲 | - |
| 괴시 | 마을회관, 노인정, 왕버들 노거수 | 스므나골 우물, 빨래터, 공동우물, 마을마당 | 괴시과 종택, 물소와 고택, 물소와 서당, 괴정, 침수정, 스프나골 재사, 만서헌, 입천정, 목은 유희비, 무가정터, 목은기념관 | 작은동신, 큰동신, 수구막이숲 | - |
| 닭실 | 경로당, 농어촌여성사업소등장 | 공동우물, 빨래터, 목욕터, 마을마당, 물레방아 | 유곡종택, 청암정, 송암정, 삼계서원, 충재 신도비, 석천정사, 열너비, 추원재 | 서낭당(성황당), 솟대결이, 장승 | 유물 전시관 |
| 해저 | 마을회관, 노인정 | 바래미샘, 빨래터, 공동우물, 공동마당 | 팔오현종가, 개암종가, 학록서당, 팔오현신도비, 단사장 | 진해사, 솟대, 마을숲(솔밭) | - |
| 황전 | 마을회관, 도암정 | 공동우물, 샘터(용소), 빨래터, 지당, 마을마당 | 경암현 고택, 추원재, 봉산리사 서당, 봉산리사 재사 | 도암, 남기, 동신, 성황당 | - |
| 양동 | 마을회관, 장터골 정자, 심수정 앞 회화나무 | 공동우물, 물레방아, 연자방아, 지당터, 마을마당 | 서백당, 무침당, 관가정, 향단, 안락정, 강학당, 경산서당, 창은정사, 칠천정사, 정충비각, 두곡영당, 수운정, 심수정, 동호정, 양졸정 | 윗마을 은행나무, 아랫마을 은행나무, 버드나무 당산 | 교회 사찰 초등학교 |
| 웃골 | 느티나무 동수 | 공동우물, 지당, 공동빨래터, 목욕터, 과수원, 연자방아터, 마을마당 | 백불고택, 보본당, 가묘, 별묘, 경려각, 동계정, 북계정사, 동천서당, 대암 | 비보담, 회화나무 노거수 | - |
| 납사 | 마을회관, 예담원, 옥각정사, 정자목 | 공동우물, 빨래터, 물레방아 | 니사재, 삼백헌, 망추정, 이씨고가, 초포정사, 내현재, 사효재, 효자비, 최씨고가, 분양고가, 이동서당, 시암정사, 유희비 | 당산목, 은행나무, 동숲, 용소바위, 거북바위, 말바위, 북바위 | - |
| 한개 | 왕버들 노거수, 정자목, 광대결 | 공동우물, 샘터, 빨래터, 마을마당 | 한주종택, 한주정사, 북비고택, 정현공 신도비, 돈재 신도비, 서문재, 일관정, 침경재, 여동서당(귀락정), 한천서당(월봉정), 삼봉서당 | - | 사찰 |
| 한밤 | 마을회관 | 공동샘터, 빨래터 | 홍씨종가, 대청, 효자비, 충의비, 경의재, 처존재, 경회재, 동천정, 수오정, 활원정, 추원당, 동산정, 침복재, 정일재, 애연당, 동림재, 산납재 | 성안숲(동림), 진동단, 산신당, 기우제당 | 사찰 교회 초등학교 |
| 하회 | 경로당 (하회마을보존회) | 빨래터, 도선장 | 입향조기념비, 하마비, 양진당, 충효당, 화천서당(서원), 옥연정사, 겸암정사, 빈연정사, 원지정사, 병산서원 | 성황당, 국사당, 삼신당, 서낭당, 만송정 | 탈놀이 전시관 |
| 강골 | 마을회관, 모정, 만휴정, 동각, 대숲 | 하마석터, 마을마당, 지석묘, 큰샘, 빨래터, 샘터, 지당 | 이금재 가옥(종택), 열화당 | 당산나무 | - |
| 낙안 | 동헌, 내아, 낙민루, 객사, 옥사, 훈령청, 빙허루, 향사당, 호방청, 장청, 아청, 사창, 사령청 | 큰샘, 빨래터, 샘터, 물레방아, 연자방아, 언못, 허시[시정], 대숲, 노거수, 관리사무소, 낙안읍성보존회 | 성황사, 사직단, 여제단, 선정비각, 낙안향교 | 동, 서, 남내리 상당, 하당, 중당, 석구, 은행나무, 솟대, 짐대 | 자료관 |
| 도래 | 노인정, 도천정, 우산각 | 공동우물, 빨래터, 샘터, 마을마당, 방죽, 지당 | 석계공파 종가터, 봉교공파 종가, 양벽정, 계은정, 영호정 | 당산나무, 마을숲 | 풍산교회 관리사무소 |
| 방촌 | 마을회관, 삼괴정, 고인돌 | 빨래터, 마을마당, 우물터, 옥샘터, 지당, 노거수 | 위성렬 가옥(종가), 신도비, 장천재, 다산재 | 돌장승, 입석, 허재비물, 신기 동산제당, 기우제당 | 방촌유물 전시관 |
| 효동 |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마당, 시정 | 공동우물, 연자방아터, 평바탕, 사장등, 두꺼비바위(고인돌) | 효열비, 서당터 | 동, 서, 남, 북의 당목, 입석 | - |
| 성읍 | 일관헌, 객사, 칠정, 옥터, 방장터, 현정, 과상정, 예변청, 무학정, 도청, 조현청, 호적고, 현사, 군기터, 향도정, 장방, 기두정 | 노더리방죽, 원님물통, 별원방죽, 연자매, 시거니못, 울라니못, | 포제단, 사직단, 성황단, 정의향교, 각종비각 | 안할망당, 광주부인당, 문호당, 일랫당, 개당, 돌하르방, 느티나무 당목, 땡나무숲 | 관리 사무소 |

내고 또 마을 안길의 중심에 있었다던 버드나무를 당산목이라 불렀던 것으로 볼 때, 제의터로서의 기능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옷골마을 역시 회화나무 당산에서 마을 동제와 같은 제의를 지내지 않았다고 마을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당산목 아래의 우물에서 특정일에 우물제와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회화나무 당산은 과거 마을의 중심적인 제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성읍마을에 있는 안할망당의 경우 현재에는 여성 개개인 중심의 치성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과거 읍성의 초대 현감이 안할망을 현의 수호신으로 모시고 관과 민이 함께 모여 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초기에는 안할망당이 마을 공동제의를 공간으로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읍마을 중심에 있는 당목은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느티나무로 풍년을 기원하고, 풍농을 점치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볼 때 과거 마을 공동의 제의공간으로 이용하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을의 외곽의 포제동신[포제단]에서 거행된 마을의 포제는 비교적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도서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읍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겨난 대표적인 제의로 남상위주의 유교적 제의로 거행되지만,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생업과 관련된 축산업에 대한 제의의 형태로 볼 때 민속적 제의인 동제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겠다.

조사대상지 중 외암마을을 비롯한 괴시마을, 양동마을, 남사마을, 하회마을, 낙안읍성, 방촌마을, 효동마을 그리고 성읍마을의 9개 마을에서 현재까지도 마을 공동체 제의가 전승되고

있었으며, 왕곡마을과 닭실마을, 해저마을, 황전마을, 한밤마을, 강골마을 그리고 낙안읍성[남내리, 서내리 부락]이 마을 공동의 제의가 전승이 되지 못한 이유로는 화재나 자연고사 등의 이유로 인해 신체가 없어졌기 때문과 새마을사업, 그리고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실된 경우였다. 그리고 화재나, 고사 동제를 새롭게 복원하려고 했으나 경제력이나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제의를 개최할 엄두가 나지 않음도 있었다.

그리고 한밤마을이나 효동마을처럼 노동력의 부족을 이유로 제당의 유형을 바꾼 사례로 있었는데, 한밤마을은 마을의 노동력의 부족을 이유로 매년 만들던 목제 솟대를 돌로 만들어 세웠으며, 효동마을에서는 마을 동계 후 열리는 줄다리기의 줄을 엮을 사람이 없어 줄다리기 줄의 모양대로 조형물을 만들어 수살에 둘러놓았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당의 형태와 제의의 유형도 점차 변화가 되고 있었다.

한편, 마을의 공동제이가 일어났던 장소는 주로 마을 입구나 마을 외곽의 주산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을 입구의 제당에는 주로 마을숲이나 장승, 솟대, 당산목 등의 요소가 많았고 마을 외곽은 산신당이나 성황당 등의 제당의 형태로 조성된 사례가 많았다.

마을의 입구에 제당이 많은 것은 마을의 입구는 사람 이외에 병마와 같은 좋지 못한 기운이 들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에 마을의 영역을 한정하고 마을을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해 당목이나 비보를 설치하였으며, 마을 후면에 위치한 제당의 경우 마을에서 가장 높은 위계를 형성하여 마을의 전체 영역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낙안

표 5. 전통마을의 민속적 제의 공간

| 대상 마을 | 당집 | | 당목 | | | 돌탑 | | 기타 상징물 | |
|-------|----|----------|----|----------|-----------------------|----|----------|--------|---------|
| | 유무 | 명칭 | 유무 | 명칭 | 수종 | 유무 | 명칭 | 유무 | 명칭 |
| 왕곡 | - | - | ● | 당산목 | 소나무 | - | - | - | - |
| 외암 | - | - | ● | 당산목 | 느티나무 | - | - | ● | 장승 |
| 괴시 | - | - | ● | 동신목 | 팽나무 | - | - | ● | 장승 |
| 닭실 | ● | 성황당 | ● | 당목 | 소나무 | - | - | ● | - |
| 해저 | ● | 진해사 | - | - | - | - | - | - | - |
| 황전 | - | - | ● | 동신 | 느티나무 | ● | 성황당 | ● | 입석 |
| 양동 | - | - | ● | 당목, 고사목 | 버드나무, 은행나무 | - | - | - | - |
| 옷골 | - | - | ● | 당산목 | 회화나무 | - | - | - | - |
| 남사 | - | - | ● | 당목, 칠성제당 | 느티나무, 은행나무 | - | - | - | - |
| 한개 | - | - | - | - | - | - | - | - | - |
| 한밤 | - | - | ● | 당목 | 팽나무 | - | - | ● | 진동단 |
| 하회 | ● | 서낭당, 국사당 | ● | 삼신당 | 느티나무 | ● | 성황당 | - | - |
| 강골 | - | - | ● | 당산목 | 팽나무 | - | - | - | - |
| 낙안 | - | - | ● | 당산 | 느티나무, 은행나무 | ● | 상, 중, 하당 | ● | 입석 |
| 도래 | - | - | ● | 당산 | 느티나무 | - | - | - | - |
| 방촌 | - | - | ● | 당산나무 | 소나무 | - | - | - | - |
| 효동 | - | - | ● | 당산 | 느티나무, 뒤업나무, 팽나무, 배롱나무 | - | - | ● | 입석 [수살] |
| 성읍 | ● | 안할망당 | ● | 당목 | 느티나무 | - | - | - | - |

읍성이나 성읍마을의 경우, 읍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의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을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즉, 이를 치유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비교적 많은 제당이나 치성의 공간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마을이 비교적 노출되어 있는 효동마을의 경우는 마을의 외곽 동, 서, 남, 북의 각각의 방위에 당산목과 입석[수살]을 배치해 놓고, 또 마을 입구 옆으로는 마을숲을 조성해 놓았는데, 네 방위의 당산목은 마을 지형의 허함으로 인해 비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입구의 마을숲은 북에서 불어오는 계절풍을 막기 위해 차폐하여 조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별한 효용이 있었다기 보다는 마을 주민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괴시마을처럼 마을 내 동진이 있었지만 병마인 괴질의 출현을 통해 마을 내 또 다른 제당을 건립하고 제의의 주관을 남씨 일가가 담당함으로써 마을 내, 외부의 영역을 점유하였던 사례도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전통마을에서 공동체적 문화가 행해지던 공간의 문화경관적 해석을 통하여 전통마을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마을단위의 주거단지 계획 시 공동체적 공간을 설정, 활용하는 간접적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전통마을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배산임수나 장풍득수의 풍수사상을 원칙으로 터를 조성한 만큼 마을의 형국을 마을의 경계로 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마을의 형국이 풍수적으로 안정된 형국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마을숲이나 비보물과 같은 심리적인 장치들로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장치물들은 마을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거나 중요한 상징물로 여겨져 신성시하였다.

둘째, 전통마을의 공간은 도로나 하천, 지형, 지물의 요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마을의 경계를 형성하거나 영역을 규정하게 되는데, 도로가 교차하거나 특정의 지물이 있는 경우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어 마을의 주요 공동체 공간이 되었다. 또 특정의 경계를 이루는 요소가 없더라도 마을주민들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공간이 분할되거나 위계를 형성하여 자연스럽게 의식적인 경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사회적 영역 중 집회, 휴식의 공간인 마을회관과 노인정은 비교적 근대 이후에 조성된 공동체 공간으로 그 위치에 선정에 있어서는 마을의 성씨별 구성형태나 마을의 형국과 관련한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마을 입구에 마을회관과 같은 공동체 공간이 위치한 경우 마을로 통하는 주입구가 하나일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주로 마을의 구성이 동성마을의 형태

로 구성되어 있다. 또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경우는 마을로 향하는 주동선이 2개 이상일 때 주로 나타나는데, 양성마을 이상의 성씨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이거나 동성마을의 파손들에 의해 새로운 마을의 공간으로 확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공동생활의 공간으로 우물, 샘터 등과 같은 공동체 공간은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마을의 형국과도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풍수 형국상 행주형이나, 연화부수형의 형국을 가진 마을의 경우 우물을 마을 내에 두는 것을 지양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을 외곽의 계곡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을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마을의 공간을 구획하는 등의 소규모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이웃 간의 잦은 접촉을 유도해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넷째, 농작물을 도정하는 공간이나 농작물을 건조하는 마을 마당의 공간들은 마을의 소작들이나 하인들이 거처하는 공간 주위에 위치하여 마을주민 모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는데, 서로간의 공동의 노동을 통한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마을마당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공동의 놀이가 주체되는 장소로 놀이와 휴식, 작업을 할 수 있는 다의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였다.

다섯째, 전통마을의 종가는 마을 내부의 가장 내밀한 공간에 종가가 위치하고, 또 주산의 중심 혈자리에 위치하여 주산에서부터 종가, 그리고 마을 안산으로 이르는 상징적 위계의 축을 형성하여, 마을 종가가 가지는 위계는 상당히 높았다. 또한 마을 중심에 종가가 위치한 경우는 종가 자체가 풍수형국의 영향을 받아 마을의 중심적인 영역으로 상징되거나, 또 마을의 중심적인 상징물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마을 내에서의 특정의 위계와 장소성을 형성하였다.

여섯째, 정려를 비롯한 신도비는 개인의 표창함과 동시에 문충을 상징하는 일종의 기념비적인 건물로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마을을 오가는 지역유림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알리고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공간에 건립하였는데, 주로 마을 입구나 언덕, 그리고 특정의 상징적인 가옥 앞에 건립되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상징물은 유교적 의식이 강한 반가의 마을에서 의식적인 경계의 의미로도 이해되어 마을 주민들의 소속감과 귀속의식을 강하게 하는 효과도 있었다.

일곱째, 조선사회가 유교적 의식이 강한 만큼 전통마을의 공간에는 서당, 서원을 비롯한 교육공간과 재실건축이 마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연을 벗 삼고자 하는 당시 유교적 이상향과 맥을 함께 한다 할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유교적 공간들은 조상을 봉헌하는 제사의 기능과 휴식, 강학을 위해 건립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의 영역과 위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로도 이해되어졌다. 마을의 재실들에 서당의 기능이 복합된 것은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질서 부여라는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재실에서 교육함으로써 학동들에게 수시로 훌륭한 조상을 상기시키며 공부를 독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제와 문종의 회합 때에만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재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여덟째, 전통마을의 민속적 의례공간은 마을주민들이 공동의 안녕과 화합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서 과거에서부터 전승된 토착 신앙적 요소가 강하였는데, 민속적 의례공간들의 본질이 마을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 서로 간의 암묵적인 질서를 만들어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주민 서로 간의 상호존중과 배려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암묵적인 질서는 마을 주민 서로간의 공동체 의식함양에 많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전통마을의 공동체 공간에 내재된 문화경관은 마을의 주체인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통마을의 공동체 공간은 단지 개별적으로 독립된 계층에 의해 점유된 공간이라기보다는 공간의 사용유무에 따라 다의적인 장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였고, 남녀노소의 사용계층에 따라 특성의 공간이 점유되거나 분리되어 차별화되어 있지만 서로 간의 암묵적인 소통과 이해로 자연스럽게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었다.

도덕경 25장에 나오는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처럼 우리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으며, 또 인연을 맺으며 살아갈 것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전통마을의 공동체가 주는 교훈적 가치를 다시금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또 소통하고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이상향이자 오래된 미래일 것이다.

인용문헌

1. 김경환(2006). 한국 전통 정주지의 해석을 통한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방안: 입지선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김동찬, 이윤수, 임상재(1999). 무속 공간모형에 의한 남사마을 공간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2): 95-107.
 3. 김미성(2008). 도시축제와 공동체문화 형성에 관한 연구. 대중서사연구. 20: 311-343.
 4. 김세철(2005). 숭대신앙의 커뮤니케이션적 특성과 의미. 언론과학연구. 5(1): 92-113.
 5. 김수진, 정해준, 심우경(2007). 전통마을 공동체적 공간의 의미해석-전남 영광군 효동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3): 94-105.
 6. 김수진(2010). 전통마을 공동체 공간의 문화경관 해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 김한배(1981). 문화경관적 상징성의 체계로 본 한국전통 마을의 경관구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국정브리핑자료(2005. 2. 16).
 9. 신상섭(2000). 전통마을 공간구성에 적용된 환경설계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1): 20-31.
 10. 심우경(1987). 조경에서 생태학과 풍수사상의 관련성. 한국정원학회지. 1(6): 149-160.
 11. 이재근(1981). 민간신앙이 한국전통마을의 조경요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하회·양동마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해준(2005). 한국의 마을문화와 자치·자율의 전통. 한국학논집. 32: 213-234.
 13. 임재해(2001). 농촌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 방향 구상과 실천과제. 한국민속학회지. 33: 255-297.
 14. 임재해(2007). 마을민속 조사연구방법. 서울: 민속원.
 15. 장동수(2001). 한밤마을 의례경관의 의미. 한국정원학회지. 19(35): 1-10.
 16. 최협(1998). 전통적 공동체의 문화적 재생: 낙안읍성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 193-261.
 17. 표인주(2002). 남도민속문화론. 서울: 민속원.
 18. 홍성구(2009). 온라인 커뮤니티를 매개로 한 아파트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1): 227-270.
 19. 행정자치부(2007).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20. Rapoport. A. 이규목 역(1985). 주거형태와 문화. 서울: 열화당.
 21. Hillery George A.(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1-123.
 22. Redfield. R.(1947). The Folk Society. American Journal Society. 52: 293.

원고접수: 2010년 11월 8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11월 27일

2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